

# 광주복지재단 두 돌... 복지행정 토대 닦았다

노인·장애인 정책 연구기관  
‘베이비 부머’ 첫 실태조사  
맞춤 일자리·자립방안 모색  
치매노인·1인가구 복지 주력

광주복지재단이 ‘광주형’ 복지행정을 선도하고 있다. 광주복지재단은 출범 첫해인 2016년 복지통계와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등 5대 정책연구를 시작으로 광주 복지의 토대를 구축했다. 광주복지재단은 빛고을노년건강타운과 효령건강타운 등 시설을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인·장애인 정책을 중심으로 광주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연구기

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졌다. 연구 과제 대부분을 복지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등 새로운 기초보장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광주복지재단은 광주지역 복지 실태 조사와 광주시 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 아동양육시설 장애아동 자립 지원 방안 연구 등 7개 연구 과제를 완료했다. 재단은 지난해 8월28일부터 9월15일까지 광주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광주복지실태조사 진행했다. 조사 영역은 일반사항, 경제활동, 공동체, 가족, 정신건강, 삶의 질, 복지전달체계, 복지의식 및 욕구 8개 분야다. 이중 삶의 질 영역의 만족도, 행복감을 확인해보면 광주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경제상태, 고용과 노동, 주거환경, 가족 돌

봄, 건강과 보건, 교육, 여가생활 등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 지원방안 연구는 광주의 베이비 부머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한 것으로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실태를 공개했다. 재단은 실태 조사에 그치지 않고 베이비 부머들을 위한 노후설계 지원 시스템 마련과 이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을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광주복지재단은 올해 ▲기초 데이터 구축 ▲시민의 욕구 실태 반영 ▲현장수요 중심 연구 ▲중장기 정책수립 등 4개 분야로 나눠 8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광주복지재단이 중점을 두는 연구는 급격한 노령화 사회를 반영한 치매노인 실태조사와 1인 가구 생활 실태 및 지원방안이다.

치매노인 연구는 환자는 물론 가족들의 어려움까지 파악해 정부의 치매노인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른 치매노인정책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인 가구 실태조사도 청년, 중장년, 노인, 여성 등 다양한 1인 가구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해 유형별로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단은 광주시 복지자원 분석 연구를 통해 5개 구별, 시설 유형별 복지자원 현황을 분석해 지역사회 복지자원 관리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광주복지재단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복지현장과 시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며 “그만큼 현실적인 연구 성과이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서 운영될 ‘찾아가는 동화구연’은 빛그림을 활용해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제공>

## 독서가 즐거워지는 빛그림 동화구연

서구 어린이생태도서관

광주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어린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서구 지역 18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어린이들이 책읽기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빛그림을 활용한 동화구연 프로그램도 있다. ‘찾아가는 동화구연’은 5세~7세 어린

이가 대상이다. 프로그램은 전문 동화구연 지도사와 독서토론 지도사가 맡는다.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은 ‘학교로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 ‘책과 함께 생태전래놀이’를 다음달부터 6월까지 운영한다. ‘책 놀이터’, ‘엄마랑 책놀이’, ‘창의속속 책 놀이터’ 등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피부로 와닿는 정책 발굴...사회서비스진흥원 철저히 준비”

장현 광주복지재단 대표  
노인 고독사 복지연구 필요  
“시책 반영에 역량 다할 것”

광주복지재단 장현(사진) 대표이사는 27일 “광주형 복지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이사는 “지난 2년은 정책개발부터 시설 운영까지 노인과 장애인 복지의 원스톱 서비스 구축에 집중해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지역 복지정책 연구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고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가겠다”고 말했다. 빛고을노년건강타운과 광주지역 복지



시설 위탁·운영하는 등 명실상부한 노인과 장애인 복지의 현장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했다고 자평했다. 또 그는 “그동안 재단의 운영 방향을 담은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복지의 원스톱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광주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 성과로 정책연구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고 덧붙였다. 지역의 복지 전반의 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복지 특성’을 먼저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도 철저한 연구 속에서 대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철저한 지역

내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만들어야 하며 이런 연구 자료가 쌓일수록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정책이 가능해 진다”고 강조했다. 올해 치매노인과 1인 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도시 속 섬처럼 외롭게 살고 있는 치매노인과 1인 가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위기에 처한 이웃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 설립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제대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광주복지재단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시 남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첫 대상으로 70대 어르신 집 선정,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남구에 따르면 29일 광주시 남구 주월1동 A(79)씨 집에서 희망주택 리모델링 74호점 착공식이 열린다. A씨는 현재 홀로 살고 있으며, 집안 전체에는 곰팡이로 뒤덮여 악취가 심하고, 이로 인해 한겨울에도 문을 열어놓고 생활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남구기독교교단협의회는 이 같은 상황을 전해 듣고 성금 986만원을 모아 도배

## “어르신 이제 곰팡이 걱정 마세요” 남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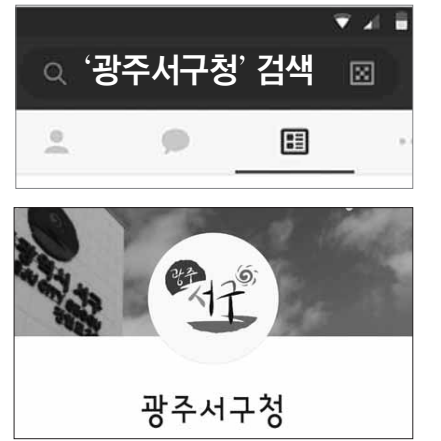
와 장판 교체, 전등 보수 등 집수리에 나설 예정이다. A씨는 “곰팡이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었는데 도움을 받게 돼 고맙다”면서 “이제 아무 걱정 없이 두 다리

쪽 펴고 잠을 청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홍영준 남구기독교교단협의회장은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희망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수혜자에게 가장 큰 만족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A씨 집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다각적인 사회 공헌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사업비 3억9000여만원을 들여 장애인 독거노인, 한 부모 세대 등 취약계층 73세대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광주서구 복지 정보, 카톡으로 받으세요

광주시 서구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서구는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유익한 맞춤형 정보 전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는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가장 대중화된 SNS앱인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스마트폰 앱인 카카오톡에 접속한 뒤 상담단의 검색창에 ‘광주서구청’을 입력해 친구로 추가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민원·복지·건강·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사고·재난 등 서구의 긴급 상황에서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서구는 이달 31일까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오픈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추가한 뒤 ‘참여완료’, ‘이벤트 참여’ 등 메시지를 전송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총 30명에게 편의점에서



서구청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화면. 사용 가능한 5000원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며 당첨자는 다음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지역 내 정보와 소식을 더욱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선보이게 됐다”면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록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나주, 2층주택, 급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 1000만원
- 급매 - ~~8200만원~~ → 6200만원
- (2018년 3월 31일까지)
- 문의. 010-3605-5000